

뭔가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드는 길은 끊임없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오늘 밥다다는 특히 런던에서 온 자들을 만나려고 왔다. 만난다는 것은 아버지와 대등해진다는 뜻이다. 너희들이 그에게 온 이래로 밥다다는 너희에게 어떤 신호를 주어왔느냐? 자녀들아, 고결한 영혼인 너희들 모두, 모든 미덕과 모든 성취에서 아버지와 대등하며 너희는 주인들이다. 너희는 아버지보다도 더 높아서, 아버지 머리 위의 왕관이다. 너희는 바바가 전에 말한 것처럼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이며 아버지처럼 모든 미덕으로 가득한 완전한 주인이 되었느냐? 지금 이때에 아버지와 대등해져야만 너희는 세계 왕국에 권리를 가진 미래의 저 신인들이 될 것이다. 너희가 어느 정도로나 아버지와 대등해졌는지 지속적으로 너희 자신을 점검해보고 있느냐? 각각의 미덕과 힘을 너희 앞에 두고서 너희가 몇 퍼센트나 각 미덕과 힘의 화신이 되었는지 스스로 체크해라. 이 지시를 따르기는 쉽지 않느냐? 밥다다는 너희들 앞의 본보기다. 육신의 형태와 무체의 형태, 양쪽 형태 모두로 아버지를 보고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라. 아버지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아이들도 그렇다, 라는 말이 있다.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보인다”는 말도 역시 기억된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가 아버지를 따르는 관계다. 그것은 어렵지 않은데 너희는 그것을 어렵게 만든다. 만일 그것이 어렵다면 너희는 그것을 변함없이 어려워할 것이다. 일부에게는 그것이 쉽다. 나머지에게는 그것이 어렵다. 어쩌서 그러하냐? 같은 사람에게 때로는 그것이 쉽고, 때로는 어렵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뭘 증명하느냐? 어려워하는 것은 움직여 나아가는 자들의 약함 때문이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신봉자들은 아버지를 찬양하여 노래 부른다.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과 더불어 그들은 여전히 위대한 영혼인 너희들, 숭배받을 가치 있는 너희들도 역시 칭송한다, 너희에 대한 칭송이 기억나느냐?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영혼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들은 아버지에게 가거나 너희 신인 영혼들에게 간다. 남들의 어려움을 없애주는 자들이 어떻게 뭔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느냐? 뭔가 어려워할 때 너희 지각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너희가 어렵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이 경험이 아주 많다. 너희는 아버지를 보지 않고 상황을 보기 시작한다. 너희가 상황에 매몰될 때 여러 가지 의문이 일어난다. 만일 너희가 아버지만 봤다면, 그는 점이니 너희가 모든 상황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을 것이다. 상황은 나무이고, 아버지는 씨앗이다. 확장이라는 나무를 젊어지려고 애쓰기 때문에 너희는 나무를 붙들 수도, 아버지를 붙들 수도 없다. 너희가 아버지를 젖혀두고서는 지각에 확장의 나무를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 마음의 소망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낙담한다. 낙담한 사람을 나타내는 표시는 그가 끊임없이 이런저런 상황이나 사람에 관해 불평한다는 점이다. 그가 불평을 더 많이 할수록 그 자신이 더 심하게 사로잡히는데 왜냐하면 그 확장 자체가 전부 다 덧이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엔 너희가 그것에서 빠져나오려고 더 애쓸수록 그 안에 더욱 갇히게 된다. 아버지 또는 상황,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 너희는 반 사이클 동안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고 말로 전해왔다. 신봉의 길의 바가와드와 라마야나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것들은 참으로 긴 이야기들이다.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 아버지는 거기에 없었다. 심지어 지금도 너희가 상황에 휘말리면 너희는 아버지를 잃는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게임을 하느냐? (숨바꼭질입니다.) 너희는 제3안을 가린 채 그를 찾으려고 애쓴다. 아버지는 소리쳐 너희를 계속 부르고 너희는 그를 계속해서 찾는다. 결국은 어찌 되느냐? 아버지가 친히 와서 너희와 함께 있어줘야 한다. 너희가 그런 놀이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상황의 확장 속에 들어 있는 온갖 다채로운 사물이 너희를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에서 비켜선다면 너희는 변함없이 쉬운 요기로 남을 것이다. 런던에서 온 자들은 그 무엇도 어렵게 경험하지 않는다, 그렇지?

너희 자신을 바쁘게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라.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전혀 없을 때는 너희가 다른 일의 확장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큰 행사로 바쁠 때는 그 당시에 다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도 너희는 그 모든 일에서 비켜설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오직 봉사에만 관심을 둔다. 심지어 너희는 식사하고 잠자는 것에 관해서조차 생각하지 않는다. 세계 시혜자 영혼으로서 끊임없이 무한한 과제의 계획이 나와 있게 해라. 너희 지각이 다른 것에는 전혀 시간을 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무한한 과제를 지각에게 주어라. 너희의 지각을 분주하게 유지할 일들을 날마다 일기에 목록으로 작성해라. 이를 통해서 너희는 자동적으로 쉬운 요가를 경험할 것이다.

이 요가에 관해 말할 때 너희는 그것이 쉬운 라자 요가라 한다. 그것이 때로는 쉬운 요가이고, 때로는 어려운 요가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밥다다는 자녀인 너희들 모두가 그것에 붙여준 이름에 걸맞은 모습으로 안정해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너희가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가 된 뒤에도 뭔가를 어렵게 경험한다면, 그것이 언제 너희에게 쉬워지겠느냐? 지금이 아니면 영영 안 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해결하려면 너희들끼리 계획을 세워라.

런던 그룹을 만나심.

보석인 너희들 하나하나가 지극히 사랑스럽고 매우 소중한데, 왜냐하면 보석인 너희에게는 각자만의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이 과업은 오직 너희들 모두의 각각의 특질로 달성될 것이다. 뭔가 요리를 만들었을 때, 너희가 장만한 그 음식이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만일 설탕이나 소금 같은 기본 재료를 넣지 않았다면 그 요리는 먹을 만하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처럼 고귀한 세계의 과제를 위해서는 보석인 너희들 각자가 반드시 필수적이며 모든 이의 손가락이 필요하다. 그 그림에서 모든 이의 손가락이 묘사된다. 마하라티들의 손가락만으로는 세계 변화의 과업이 달성되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모든 이의 손가락이 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너희들 모두 각자 나뉘어로는 마하라티이고, 밥다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밥다다와 도구 영혼들은 영혼인 너희들을 늘 앞세운다. 그러므로 너희들 모두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고귀한 보석들이다. 너희는 밥다다가 받아들인 보석들이다. 신의 시선이 어떻게 돌에 가 닿았고 그 돌이 어떻게 신성해졌는지에 대한 기념물이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가 받아들인 고귀한 보석들이다. 너희들의 과제의 위대함과 가치를 알아라. 악티들에 대한 칭송은 너희 악티들에게 속하고, 판다바들에 대한 칭송은 너희 판다바들에게 속한다. 그러므로 너희들 모두 위대한 영혼들이다. 위대한 영혼을 나타내는 표시가 무엇이나? 영혼이 더 위대할수록 그 영혼은 그만큼 더 겸손하다. 위대한 영혼들은 항상 그들 자신을 순종적인 하인으로 경험한다. 너희 그룹은 이와 같지 않느냐? 악티 바반에서 온 너희 악티들은 끊임없이 너희들의 형태를 기억하고 있을 것 아니냐? 너희들의 장소에 따라서 너희는 자기의 단계를 기억한다. 악티들의 특별함은 마야의 정복자라는 점이다. 어떤 유형의 마야도 악티에게 올 수 없는데, 왜냐하면 악티는 마야를 타고 다니기 때문이다. 악티들은 항상 손에 삼지창을 든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것이 뭘 상징하느냐? 삼지창은 너희의 단계를 상징한다. “마스터 트리무르티, 트리네트리, 트리칼다르시, 트리코키나트” 같은 합류시대의 칭호들은 전부 다 너희의 단계를 가리키며 삼지창으로 상징된다. 너희는 의식 속에 이 단계를 갖고 있느냐? “끊임없이”란 말에 밑줄을 쳐서 강조해라. 너희가 세상의 분위기를 벗어나 비켜섰으니, 너희는 아주 큰 행운을 만들었다. 밥다다는 너희 자녀들의 행운을 보며 매우 기쁘다.

2. 너희 자신을 숭배받을 가치 있는 영혼이라 여기며 너희는 끊임없이 전진하느냐? “숭배받을 가치 있는 영혼”이란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이다. 위대한 영혼들은 어떤 특질을 한결같이 지니느냐? 그들은 제 자신을 손님이라고 간주한다. 자기 자신을 손님이라고 여기며 움직여 나아가는 자들은 위대하고 숭배받을 가치 있는 영혼들이 된다. 어째서냐? 버림은 행운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너희 자신을 손님이라 여김으로써 너희는 몸이라는 건물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손님에게 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필요한 것은 뭐든 쓰게끔 제공되지만, 그에게는 그 무엇도 자기에게 속한다는 느낌이 없다. 손님들은 모든 걸 다 쓰지만 무엇 한 가지도 자기 것이라고 느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 초연하되 사랑할 것이다. 집에서 살면서 자기들 자신을 손님이라 여기는 자들은 사랑하면서 초연하고, 모든 것을 봉사에 쓸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위대한 영혼들 아니냐? 너희들 자신을 손님이라 여기지? 오늘 너희가 여기 있지만 내일이면 집에 돌아갈 것이고, 그 다음엔 내려와서 너희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가진 유일한 관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끊임없이 너희 몸에서 분리되어 있어라. 너희 몸에 대해 초연해지면 너희는 또 육신의 친척들과 소유물들에 대해서도 역시 초연해진다. 초월한 이 단계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단계다! 너희는 행위를 행하려고 한 순간 내려오고, 바로 그 다음 순간엔 저 너머로 간다. 너희는 이것을 경험하느냐? 너희들의 살아 있지 않은, 숭배받을 가치 있는 상들이 사원 안에 보관되어 있다. 그러나 합류시대에 초월한 너희들의 단계에 대한 기념물은 신봉의 길에서 아직도 기억된다. 사원들이 지어져서 락쉬미와 나라얀에게 바쳐지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자기들의 것으로 느끼겠느냐? 그들은 완전히 그 느낌을 초월해 있다. 숭배받을 가치 있게 되는 그 살아 있지 않은 상들은 어떤 것 하나도 자기들에게 속한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살아 있는 너희 숭배받을 가치 있는 영혼들도 역시 손님이라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손님이라는

너희의 태도가 더 클수록 너희의 가족과 너희의 단계는 더욱 고귀해질 것이다. 너희가 런던의 주민이라고 불리는 것은 단지 명목상으로 뿐인데 왜냐하면 사실 너희들 모두 손님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너희가 여기 있지만 내일이면 너희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오늘과 내일”이라는 단 두 마디만 의식하고 지냄으로써 너희는 사이클 전체를 의식할 것이다. 너희는 것처럼 위대하고 숭배받을 가치 있는 영혼들이다. 런던에 사는 너희 영혼들은 아주 좋은 믿음과 열의를 지니고 있다. 너희는 약한 영혼들이 아니다. 장애가 오면 너희는 그것들을 극복한다. 너희는 염소가 아니고 암사자들이다. 염소라는 것은 끊임없이 “메, 메” (나, 나) 하며 운다는 뜻이다. 샹티 군대의 깃발이 높이 휘날리고 있다. 샹티 각자가 전능한 아버지를 영광되게 빛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샹티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의 외침이 들릴 것이다. 승리의 나팔을 처음 부는 곳이 어디이겠느냐? 런던이겠느냐 미국이겠느냐? 밥다다는 암컷 벨라에 사랑하는 너희 자녀들을 끊임없이 축하한다. 그는 “와 나의 자녀들! 와!”라는 노래를 끊임없이 부른다. 너희는 이 노래를 들을 수 있느냐?

선생들을 만나심.

너희들은 런던의 봉사의 장식들이다. 런던 박물관에 여왕의 장식품 (훈장)들이 있듯이 너희들도 역시 밥다다의 전시관에 있는 그의 장식들이다. 너희는 한결같이 위대하고 또 변함없이 겸손하다. 이 특질은 너희를 위대하게 만들뿐 아니라 너희가 하는 봉사도 역시 위대하게 만든다. 너희들은 서로의 산스카르들을 조화시키는 데 지혜롭지? 어떤 이가 신체의 손이나 발을 쓰는 방법을 모르면 그의 동료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또는 발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그의 발에 자기 발을 얹고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이처럼 너희들 모두 뭘 해야겠느냐? 너희는 전진하고 협조하며 그들에게 협조하는 너희의 손을 보태줌으로써 산스카르들을 조화시키는 춤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것에서 너희들은 일등 아니냐? 이 특기를 토대로 그들의 산스카르를 제일 많이 조화시키는 춤을 추는 자들, 그리고 바바에게 협조하는 자들은 슈리 크리슈나와 함께 첫 번째 생에 태어나 그와 손을 잡고 춤출 것이다. 너희는 그와 같이 춤추기를 원하지? 산스카르들을 조화시키는 춤을 추는 제일 쉬운 방법은 너희 자신이 겸손해져서 남들에게 고귀한 자리를 주는 것이다. 너희의 자리를 남들에게 내어주면 그들 스스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너희에게 그것을 권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그 자리에 먼저 앉으려 하면 남들은 너희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지 않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남들을 거기에 앉히면 그들은 일어나서 너희를 그 자리에 앉게 한다. 남들을 그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너희 자신을 앉힌다는 뜻이다. “당신 먼저!”의 가르침을 매우 확고히 해라. 그러면 너희가 남들과 산스카르들을 쉽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리를 받을 것이며 무용이 공연될 것이다. 너희는 그 미래의 춤도 역시 공연할 기회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다.

이 그룹은 진정으로 봉사할 줄 아는 런던의 그룹이다. “봉사자”라는 말은 매우 듣기 좋다. 너희는 “선생”이나 “봉사자”라는 말을 선호하느냐? 심지어 아버지도 스스로를 너희들의 순종적인 하인이라고 부른다. 너희 자신을 하인이라고 부를 때 너희는 자동적으로 왕관을 쓰게 된다. 이것이 지혜로워지는 길이다. 훨씬 적게 수고하고도 성취는 훨씬 더 크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아버지의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라.

프랑스.

너희들은 끊임없이 기억의 순례를 하며 매 발걸음마다 수백만의 수입을 축적하고 있느냐? 매 발걸음마다 수입을 수백만씩 버는 자들은 엄청나게 부유할 것이다. 너희들 자신을 그렇게 가득한 영혼으로 경험하느냐? 너희는 끝없는 보물들을 받았느냐? 보물창고의 열쇠를 받았느냐? 열쇠를 쓰는 방법을 아느냐? 너희가 열쇠를 쓰려고 애쓸 때 때로는 그것이 걸리느냐? 이 열쇠는 쓰기가 아주 쉽다. “나는 모든 권리를 다 가진 영혼이다.” 모든 권리를 다 가졌다는 이 인식이 모든 보물들에 대한 열쇠다. 이 열쇠를 쓰는 방법을 너희가 아느냐? 이 열쇠로 너희는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보물들을 가져갈 수 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행복, 평화, 사랑, 뭐든 너희는 선택하는 대로 받을 수 있다.

질 문: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영혼인 너희가 무엇을 없애야 하느냐?

대 답: 영혼인 너희는 낭비적인 생각, 말, 행위라는 쓰레기의 무게를 짊어지고 다닌다. 이것이 영혼을 무겁게 만든다. 이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봉사하며 너희 자신을 끊임없이 분주하게 유지해

라. 되새기는 힘을 길러라! 되새김으로써 영혼들이 강력해진다. 너희가 음식을 제대로 소화 시킴으로써 혈액의 힘을 늘리고 그 기운이 너희를 위해 작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의 힘은 너희가 되새길 때 늘어난다.

질 문: 신봉의 길에서 널리 알려진 어떤 만트라를 너희 의식 속에 간직하면 그것이 너희가 끊임없이 행복의 그네를 탈 수 있게 만드느냐?

대 답: 신봉의 길에서 “힘 소, 소 힘”이라는 만트라는 매우 유명하다. 너희 자녀들은 지금 실제로 “힘 소”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만트라는 우리들을 위한 것으로, 브라민인 우리는 신인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신인들이었고, 신인이던 우리가 이제 브라민이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게 된 것은 지금이다. 우리가 신인들의 형상을 볼 때 우리의 지각은 그것이 우리들의 형상임을 알아차린다. 이는 경이로운 일이다! 끊임없이 이 의식을 유지해라, 그러면 너희가 행복의 그네를 탈 것이다.

축 복: 모든 이를 사랑하고 모든 이를 존중해 줌으로써 너희의 기록을 좋게 유지해라. 너희가 모든 이를 존중해 주는 그 정도에 따라 너희는 기록을 좋게 유지할 수 있다. 남들에 대해 존중심을 가진다는 것은 너희 자신의 기록을 만든다는 뜻이다. 야기야 (희생의 불)의 조력자가 됨으로써 너희가 도움을 받듯이, 존중해 주는 것이 또 존중을 받는 길이다. 한 번 주는 것이 여러 번 받을 권리를 차지한다는 뜻이다. 젊은 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연장자들에게 존경을 줘라, 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모든 이를 다 연장자라 여기며 존중하는 자들은 모든 이에게서 사랑 받는다. 이를 위해서는 “당신 먼저”의 교훈을 모든 측면에서 확실히 해라.

슬로건: 너희가 밥다다에게서 받아온 가르침들을 적시에 기억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 음 산티 O M S H A N T I ***